

투데이 칼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동 일부 산하 하나재단에서 공개한 '2019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대부분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30% 이상이 편견과 무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화적 차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 전문기술 부재 등을 꼽았다. 국내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은 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사회 체제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남북이 달라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제일 시급한 것은 취업문제다. 이들은 전입과 함께 우선 일자로부터 빨리 구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부터 하기 쉽다. 그러나 취업한 사람들은 재 한 달도 안 돼 일을 그만 두기도 한다. 자신의 적성과 근무 여건을 고려치 않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직장을 구했던 것이 화근이다.

게다가 탈북민이란 사실을 밝히기가 무섭게 대부분 사업주는 '탈북민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록 어렵게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오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다.

낮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분위기도 문제다. 이보다 더 탈북민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북한에서 쓰는 말투와 용어를 자주 지적한다. 생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에 대해 편견을 주는 바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동료들로 인해 마음속 상처를 받고 스스로 퇴사하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다.

말투와 생활 양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 국민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들도 결국 우리 민족이고 국민이다.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께안아야 할 동족이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동포애로 승화시켜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젠가 통일이 될 때 국익을 위해 크게 기여할 사람들이다.

소중한 인적 자원을 문화적·의식적 차이 때문에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고 남한 사회의 통일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데 이들은 초석이 될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탈북민들은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은 이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자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범죄 행위나 범죄 피해 발생, 재입북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통일부에서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금 지급, 취업·교육지원, 거주지보호, 사회보장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교육, 법률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두 체제를 경험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는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3회에 걸쳐 '먼저 온 작은 통일(小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재단 내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문가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지원제도, 정착 생활, 사회 통합에 관한 지식과 정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북한 이탈주민의 역사와 정착 지원 제도의 변천' '북한 이탈주민과 사회 정착' '북한 이탈주민과 사회통합'으로 구성됐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다.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는 연습이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설

고객 몰래 빠져나간 저축보험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 나간 사건이 최근 도내에서 발생했다. 전주에 있는 어느 시중은행 점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은행 측은 뒤늦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은행을 수십 년 동안 거래해 온 고객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은 지난 9월 초 30년 가까이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았다.

수억 원을 빌려달라는 거였다. 은행 직원은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은행 직원은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의 이상한 부탁이 꺼림칙했던 여성은 지난 2009년 이 직원을 통해 가입한 저축보험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당시 3천500만 원을 한꺼번에 예치했는데 지난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이 중도 인출된 것이다.

여성 은 바로 은행 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은행 직원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는 게 여성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직원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성 은 결국 은행에 대책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지난 2016년 당시 인출 과정을 수신했던 여겨 감사했을 때 여성 명의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했다고 말한다.

팔에게 위임해 중도 인출을 신청하고 인출금 입금 계좌도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성과 팔은 이런 사실이 전혀 없고 확인서를 써 준 일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고객은 '시중은행에 넘어도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디에다가 누구를 믿고 돈을 맡기겠어요' 라고 말한다. 해당 은행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위해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땅 지분 투자 성행

여전히 '기획부동산(企劃不動産)'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한 필지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소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지분 투자에 도민들도 참여해 피해가 우려된다. 개발 가능성이 적은 땅들이어서 기획부동산의 사기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수십여 건의 지분 투자 사체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지분 투자는 모두 80건이 넘는다. 강원도부터 서울, 경기, 충청,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에 밀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모두 임야로 대부분 경사가 심한 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개발 가능

성이 거의 없는데도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실거래가의 4배 넘는 가격에 임야를 사들인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 곳의 임야마다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투자를 한 만큼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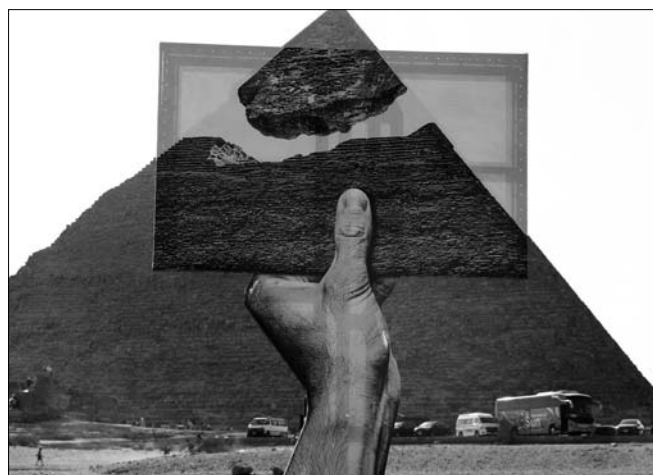
지난 6월 경기 남부경찰청이 적발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불법 수익만 해도 2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된 필지만 42필지로 축구장 60개 면적에 이른다. 피해자는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권유를 받으면 먼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리고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받는 게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등에서 교수익을 미끼로 전혀 쓸모없는 땅이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땅을 팔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피라미드 절단 착시, 이집트 국제 미술전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집트 기자에서 국제 미술 전시회가 열려 카프레 피라미드 앞에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와 주변 사막에서 이집트 등 여러 나라 작가가 참여한 첫 국제 미술전이 개막했다.

킹 목사 추모비 앞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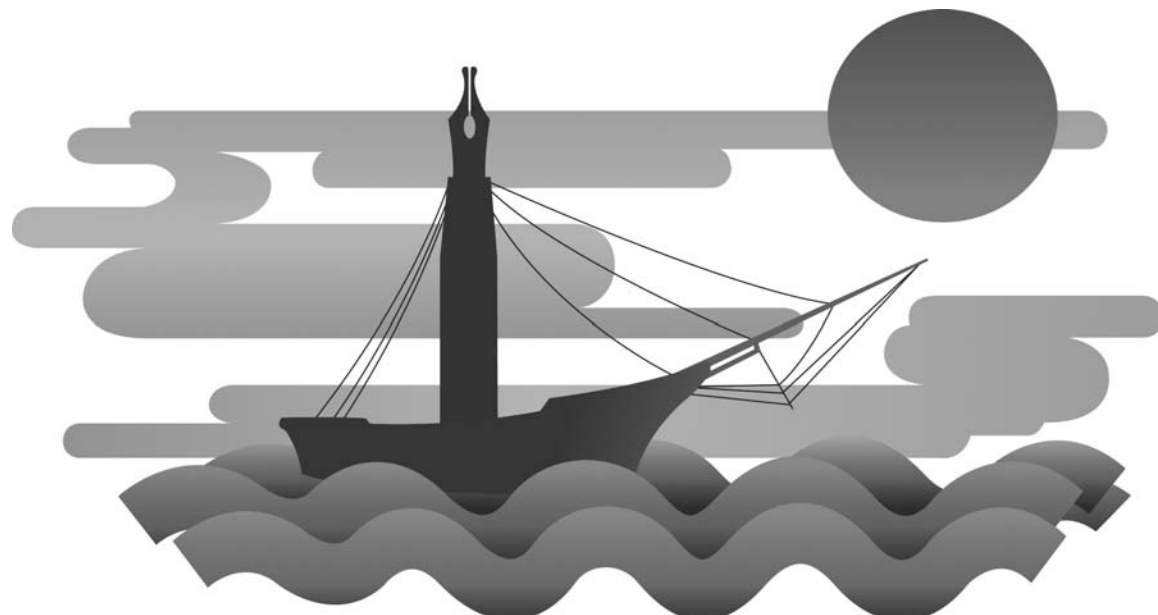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목사 추모비 건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수하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